



꿈을 노래해요! 제 점수는요? 100점입니다

가수 이승철의 '어게인 드림스캐치'

대안학교 성지중고교 학생들 합창지도
소의 청소년에 희망을... '런 웨이' 선곡
9월 열리는 폴란드 국제합창대회 참가

‘어게인 드림스캐치!’

가수 이승철이 대안학교 청소년들을 이끌고 세계합창대회에 도전한다.

이승철은 서울 방화동의 대안학교 성지중고교 학생들과 함께 9월11일부터 5일 동안 폴란드 토론에서 열리는 ‘코페르니쿠스 국제 합창경연대회’(International Copernicus Choir Festival and Competition)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승철은 6월부터 일주일에 1~2회씩 성지중고교 학생들의 합창을 지도하고 있다. 성지중고교는 정규 학교 중퇴자, 결혼가정의 소년소녀가장, 소년원 출소자, 어려운 가장형편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주부 등에게 중고교 교과과정을 교육하는 대안학교다.

앞서 이승철은 2011년 경북 김천소년교

도소 재소자 18명에게 합창을 지도한 뒤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드림스캐치 사랑론서트’란 이름으로 공연해 큰 감동을 줬다. ‘드림스캐치’는 재소자들의 편지 사연을 노랫말로 엮어 만든 신곡. 음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고, 서로의 목소리를 조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서로를 끌어안는 마음을 심어줌으로써 재소자 교화에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받았다.

이승철은 이번에도 소외된 청소년들을 이끌고 합창단을 만들어 이들이 또 다른 희망을 꿈꾸게 한다는 기대를 품고 있다. 이승철과 성지중고교 청소년들의 합창 도전곡은 최근 나온 이승철 11집 수록곡 ‘런 웨이’. 모두 힘을 내 다시 한 번 하늘을 날아보자고 격려하는 이른바 ‘힐링송’이다. 이 곡을 만든 작곡가 전해성도 이승철과 함께 합창을 지도한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이승철이 ‘합창’으로 다시 한 번 청소년들의 희망전도사로 나섰다.

스포츠동아IDB



한효주가 '감시자들'(위 사진)에서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20대 여배우의 대표주자임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는 이미 '오직 그대만'(아래 사진)에서 호평 받았다.

사진제공: 영화사 집·CJ엔터테인먼트·HB엔터테인먼트

20대 여배우 한효주 원톱 시대?

내달 개봉 '감시자'서 돋보이는 히로인
여자로서 힘든 역도 소화...경쟁자 없네

적수가 없다.

배우 한효주(사진)가 스크린에서 20대 연기자로는 독보적인 활약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연기 경험이 많은 30~40대 배우들 사이에서 주목 받지 않는 모습으로 영화에 깊이를 더하며, 고질적인 20대 여배우 가뭄 속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

한효주는 7월3일 개봉하는 영화 '감시자들'에서 설경구, 정우성과 호흡을 맞춰 경찰 특수감시반 신입 경찰관 역을 소화했다. 액션 연기도 눈길을 끈다. 한효주는 사실상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정우성이 "한효주의 영화"라고 말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적이다.

한효주가 영화에 본격 출연한 건 2011년 소지섭과 출연한 '오직 그대만'부터다. 이후 지난해 이병헌과 출연한 사극 '광해, 왕이 된 남자', 고수와 호흡한 멜로 '반장교'를 연속 흥행시키며 주가를 높였다.

신인이던 2005년 코미디 '투사부일체'에서 여고생 역을 맡기도 했지만 어렵게 스타덤에 오른 뒤 3년 동안 무려

네 편의 영화 주연을 도맡으며 빠르게 성장했다.

그동안 멜로에 치중했던 한효주는 '감시자들'에서는 설경구, 정우성과 겨루며 혹독한 세상의 이치를 알아가는 만만치 않은 연기력을 드러낸다. 한 영화 제작사의 대표는 "여배우가 맡고 싶어 하지만 소화하기 어려운 매력적인 배역을 한효주가 뜻밖의 연기력으로 소화해냈다"고 평가했다.

한편으로 한효주가 스크린에서 펼쳐 보이는 활약상이 '반사이익'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효주와 동갑내기인 배우 문근영이 최근 드라마에 치중하고 있고, 20대를 대표하는 박보영, 박신혜 등이 로맨틱 코미디 등 특정 장르에 머물면서 상대적으로 한효주가 두드러져 보인다는 평가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한효주가 함께 출연했던 이병헌, 소지섭 그리고 이번에 설경구, 정우성까지 스타 배우들로부터 받는 후광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상대 배우와 잘 호흡할 수 있는 작품을 고르는 안목도 성장의 밑바탕이 되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트위터@madinharry

성매매 업소까지 출입... '쇼킹 연예병사'

일부 연예병사 밤늦게까지 술판 등
SBS '현장21' 복무관리 허점 보도

SBS 시사프로그램 '현장21'을 통해 일부 연예병사가 성매매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1월 가수 비의 잦은 휴가와 탈모보정으로 연예병사의 복무기강 문제가 제기된 지 5개월 만에 또 다시 연예병사 군복무 실태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5일 방송된 '현장21'은 두명의 연예병사가 21일 강원도 춘천 수변에서 열린 국군방송 '위문열차' 공개방송을 마치고 춘천시내 한 음식점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한 후 새벽시간에 성매매 업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 확인결과 이들은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정해진 숙소에서 이탈하고, 연예병사의 영외 출몰에 군 내부



가 동행하지 않았으며, 연예병사가 개인적으로 휴대전화를 소지한 행위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현장21' 방송을 통해 연예병사 관리가 규정대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연예병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손현주 "이번엔 목숨 걸고 재벌 연기"

SBS 새 월화극 '황금의 제국' 제작 발표
'서민 연기' 대표배우의 연기 변신 눈길

허름한 옷을 입고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연기란' 했던 손현주(사진)가 데뷔 후 처음으로 악랄하고 욕망에 가득 찬 재벌 2세를 연기한다. 서민 연기의 대표로 시청자의 마음 한 컵을 달래던 그의 변신에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손현주는 25일 오후 서울 목동 SBS 사옥에서 열린 새 월화드라마 '황금의 제국' 제작 발표회에서 "지난해 '추적자'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서 "이번에도 목숨 걸고 연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금의 제국'은 화제작 '추적자'의 조남국 PD와 박경수 작가 그리고 손현주가 또 다시 의기투합하는 드라마로 국내 최고 그룹의 제왕 자리를 놓고 세 남자가 벌이는 욕망의 싸움을 그린다. 극중 손현주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부회장의 아들로 따뜻한 눈빛을 가지고 있지만, 그 속을 알 수 없는 최민재 역을 맡았다. 손현주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문제를 그리는데, 그 끝이 어딘지 궁금했다"면서 "박경수 작가의 대본에는 모든 게 나와 있다. 이번에도 철저하게 대본을 믿고 간다"고 말했다.

그는 '황금의 제국'이 아니면 "언제 재벌



을 연기를 해보겠느냐"며 "좋은 옷을 많이 입는 역이라 한 번 해보고도 싶었다"며 웃었다. 그는 "이번엔 상당히 옷을 많이 갈아입는다. 스타일리스트가 고생이다. 정장과 와이셔츠를 20여벌씩 준비했다. 구두도 다양하다"고 말했다. 고작 두 벌로 버틴 '추적자'와는 천양지차다.

손현주는 '추적자'로 지난해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SBS 연기대상을 받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는 "편안하게 대표집에서 술 한 잔 먹는 손현주가 '다른 드라마도 할 수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딱 4회까지만 봐 달라"고 당부해 웃음을 자아냈다.

'황금의 제국'은 7월1일 첫 방송하며 고수, 이요원, 장신영, 류승수 등이 출연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연예뉴스 스테이션

한고은,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 동생과 열애설 '부인'



배우 한고은(39·사진)이 7살 연하 군의관 양모(32) 씨와 열애설에 휩싸였다. 열애설 근거는 한고은이 양씨와 다정한 포즈를 취한 사진 두 장이다. 양씨는 SNS에 '며칠이나 뵈었다 되게 보고 싶네'라는 글과 함께 나란히 앉은 사진을 올렸고, 다른 사진에서 한고은은 양씨의 군의관 임관식에서 다정하게 포옹하고 있다. 양씨는 MBN '인생고민 해결SHOW 신세계' '햇미인'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해 유명해진 정신과 전문의 양재진의 동생. 이에 대해 한고은 소속사 지엔지 프로덕션 측은 "한고은은 평소 친한 동생들이랑 친근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다. 양씨와도 평소 막역한 사이라 친근하게 사진을 찍은 것이다. 한고은은 열애하는 상대가 있으면 솔직하게 말하는 성격"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양씨의 형인 양재진도 "한고은과는 방송출연을 함께 하며 친해졌고, 그의 가족과도 친분이 있다. 나도 한고은과 다정하게 사진을 자주 찍는다"며 열애설을 부인했다.

기성용-한혜진, 이젠 '법적 부부'다...혼인신고 마쳐

7월1일 결혼식을 올리는 배우 한혜진(32·사진 오른쪽)과 축구선수 기성용(24)이 법적 부부가 됐다. 25일 한혜진 소속사 나무엑터스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날 낮 12시쯤 서울 서초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다. 두 사람은 결혼식 다음날 곧바로 영국으로 떠난다. 기성용의 일정이 바쁜 데다 새로운 시즌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올 여유가 없어 혼인신고부터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웨딩화보를 촬영한 이들은 다음달 1일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결혼한다.

'성폭행 논란' 박시후, 컴백 예고? 日 훌피 친필편지

쌍방 고소취하로 성폭행 논란에서 벗어난 배우 박시후(사진)가 새로 단장한 일본 훌페이지에 친필 편지를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화제다. 박시후는 17일 일본 훌페이지에 남긴 친필 메시지를 통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앞으로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에 대해 박시후 측은 "컴백 예고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시후는 주연영화 '내가 살인범이다'가 1일 현지에서 개봉되고, 최근 일본 포털사이트와 각종 설문조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류스타' 1위를 차지하는 등 여전히 인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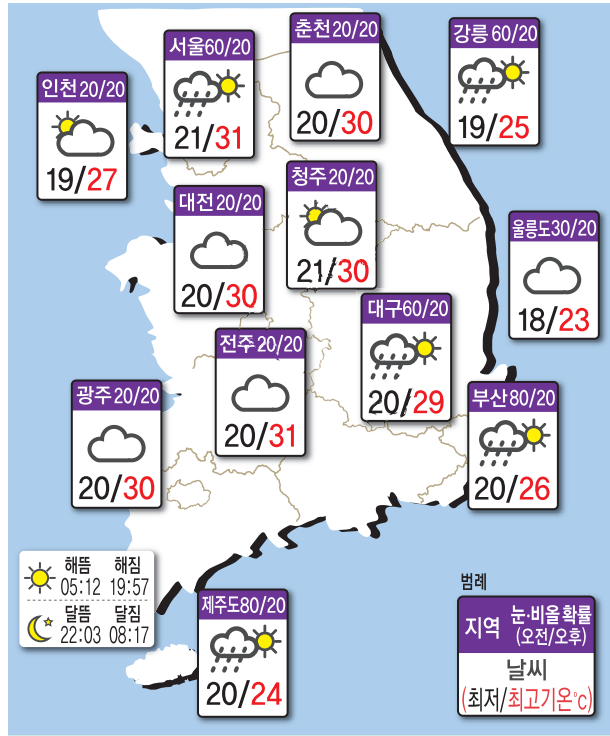
류시원, 아내 폭행 혐박·위치추적 혐의 전면 부인

부인을 폭행·협박하고 부인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된 류시원이 법정에서 나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상용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류시원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부인의 뺨을 때린 적 없다"며 "부인에게 폭언을 한 적은 있지만 부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말싸움이었"고 주장했다.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달고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관련 혐의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사는 직업 특성상 딸과 부인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부인의 휴대전화는 피고인 소유여서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위치정보법 위반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김청조 기자 minigram@donga.com

오늘의 날씨

6월 26일 수요일 (음력 5월 18일)



주간 날씨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27일(목) 21/31 20/30 20/31 21/30 20/26 20/26

28일(금) 22/32 20/30 21/31 21/31 20/25 21/25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발행인	송대근	대표전화	02 2020 0114
인쇄인	최병호	편집부	02 2020 1039
편집인	이승준	스포츠 1부	02 2020 1052
편집국장	양성동	스포츠 2부	02 2020 1051
광고국장	이승욱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레저경제부	02 2020 1062
		사진부	02 2020 1068
		시각국	02 2020 1038

www.sportsdonga.com (주)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